



## 정밀함과 정확성의 기원 (The Genesis of Precision)

### 발레드주 워치메이킹의 기원과 핵심 가치인 정밀함과 정확성 추구

#### 주요 날짜:

- 1558 년: 피에르 르쿨트르 스위스 도착
- 1612 년: 르상티에 마을의 탄생
- 1684 년: 탁월한 대장장이 기술
- 1749 년: 마침내 인정받은 워치메이킹

인류는 드넓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해와 달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시간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고, 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장치가 발명되었으며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 그리고 그리스의 해시계와 물시계, 중국의 향 시계, 중세의 모래시계, 이슬람 물시계 등은 그 시대의 정확한 시간 측정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14 세기 중반에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발명된 이후 정확성을 향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계들 덕분에 시간을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뒤이어 시계 제작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부품 성형과 무브먼트의 구조 및 조립에 있어 더욱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작고 휴대 가능한 시계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워치메이커였던 앙투안 르쿨트르가 1833 년에 예거 르쿨트르를 창립한 이래 그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었으며, 이는 곧 메종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계 제작 공방은 뛰어난 품질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르쿨트르 & 씨가 본격적인 매뉴팩처로 성장하면서 업계 전체의 표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800 년대 중반부터 스위스 최고의 워치메이킹 하우스에서 자체 시계에 사용할 칼리버를 찾게 되면서 그랑 메종은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거 르쿨트르가 추구하는 정확성의 뿌리는 오래된 역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종이 설립되기 250 여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본질적으로 발레드주 자체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망명 – 1558 년**

1517 년부터 개신교 개혁이 독일과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확산되었고, 움직임이 더 커지면서 소수 민족인 위그노(프랑스 신교도)에 대한 박해도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1558 년, 피에르 르쿨트르는 박해를 피해 신학자인 장 칼뱅이 개신교를 도시의 공식 종교로 삼았던 제네바로 이주한 망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르쿨트르는 제네바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네바의 상인과 자본가들은 발레드주의 철과 목재 천연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대장간을 짓고 벌목 사업체를 설립했으며 계곡이 명성을 떨치게 될 금속공학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피에르 르쿨트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초기 사업가들이 도시로 가져온 발레드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 **르상티에, 발레드주의 탄생 – 1612 년**

1559 년,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에 이끌린 피에르 르쿨트르는 제네바를 떠나 발레드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1,000m 에 자리 잡은 발레드주는 폭설로 인해 수개월 동안 폐쇄되기도 하는 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혹독한 기후가 특징인 바위와 숲으로 이루어진 야생 지역이었습니다. 계곡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 성실함을 갖출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발레드주 주민으로 알려진 콤비에(Combiere)의 사고방식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이러한 기질은 정교한 시계 제작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은 피에르 르쿨트르는 숲을 개간하고 집을 지으며 농장을 마련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길고 추운 겨울, 극심하게 어려운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 완전히 정착했으며, 그는 뛰어난 읽고 쓰는 능력 덕에 발레드주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아들인 피에르(Pierre)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1612 년, 당시 발레드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던 개신교도의 도시 베른의 승인으로 피에르느 르상티에에 예배당을 지었고, 이로써 예거 르쿨트르의 고향이 된 마을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 **무에서 대장장이 산업의 기술력까지 - 1684 년**

발레드주는 목재 벌목을 동력 삼아 대장간으로 부를 구축해 나갔으나 1613 년, 엄청난 산불로 인해 경제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장간은 발레드주 외부에서 수입한 석탄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었지만, 벌목과 목재 판매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다른 수입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장인 기업이 가구와 의류, 금속 도구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는 콤비에 주민의 회복력과 자립정신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은 제네바에서 발레드주로 유입된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목재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농부가 가족 대장간을 지어 대장장이 업을 통해 안정적인 두 번째 수입원을 마련했습니다. 정확성을 추구하며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대장장이들은 칼날, 버클, 자물쇠, 손잡이와 같은 작은 품목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기술을 연마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발레드주의 야금 무역에 있어 1684 년은 중요한 해였습니다. 제네바 사업가들이 이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했던 오랜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17 세기 말까지 발레드주의 대장장이와 다른 장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훨씬 뛰어넘어 품질에 대한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 **발레드주 워치메이킹의 공식 인정 - 1749 년**

1723 년에 워치메이킹이 직업으로 공식 인정되고 시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면서(비록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 시계 소유를 꿈꿀 수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발레드주의 장인들이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을 활용하여 워치메이킹 기술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1749 년, 베른은 공식적으로 발레드주의 장인들에게 상업 및 산업의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이곳의 견습 워치메이커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그들의 제품이 점점 더 많이 판매되는 제네바에서 장인들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기 후반에는 유럽 전역에서 워치메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오르골의 인기가 급상승하여 많은 대장장이 장인이 오르골 부품을 전문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앙투안 르쿨트르의 아버지 자크-데이비드 르쿨트르도 있었습니다.

피에르 르쿨트르가 발레드주에 도착한 지 10 세대가 지나고 16 세의 앙투안 르쿨트르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가족 대장간에서 금속 가공술의 신비를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823 년, 르쿨트르는 매우 잘 경화된(담금질된) 강철로 면도칼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같은 담금질법을 활용하는 워치메이킹용 끝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여 면도칼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르골의 핀과 진동 날을 완성했습니다.

####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 창립 - 1833 년**

1830 년 12 월 스위스의 자유주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여 발레드주의 기업가들이 공예술과 산업적 모험을 시작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독학으로 워치메이킹을 공부하며 정밀함과 정확성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앙투안 르쿨트르는 1830 년에 이미 강철에서 피니언을 절단하는 기계를 발명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작은 규모로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부품을 측정하고 자를 수 있는 정밀하게 보정된 커팅 및 스탬핑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발명에 힘입은 앙투안 르쿨트르는 1833 년, 르상티에에 있는 가족 대장간의 1 층을 워치메이킹 공방으로 바꿨습니다. 소수의 워치메이커를 한데 모은 그는 탁월한 정확성을 지닌 시계를 제작하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정밀함과 정확성에 관한 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피니언 커팅 기계가 개발되고 시계 제작이 시작되자 앙투안 르쿨트르는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에 이르기 위해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품질의 부품 제작을 위해 1844 년, 전례 없는 수준의 정밀도로 부품을 측정하고 부품의 소형화까지 실현해주는 밀리오노미터를 개발했습니다.



앙투안 르쿨트르는 탁월한 정확성으로 부품을 측정하고 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계를 하나씩 제작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현대 위치메이킹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정확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 - 1844 년 이후

1851 년 앙투안 르쿨트르는 최초의 세계 박람회인 런던 만국박람회에 자신의 발명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부품 호환성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인정은 스위스 위치메이킹 산업이 영국 위치메이킹 산업보다 궁극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르쿨트르의 발명품은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부품의 소형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크로노그래프, 캘린더, 차임 시계 등 더욱 작은 크기의 정교한 시계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칼리버들은 선도적인 위치메이킹 하우스에서 자사 시계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메종은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드주는 컴플리케이션의 요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866 년 앙투안 르쿨트르와 그의 아들 엘리는 발레드주에 최초의 본격적인 매뉴팩처를 설립하여 모든 위치메이킹 기술을 한 지붕 아래 통합했습니다. 장인들이 각자 소유한 소규모 공방에서 작업하는 *에타블리사주(établissage)*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당시, 이는 아이디어의 공유를 장려하고 시리즈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대 위치메이킹 산업을 정의하는 선견지명이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정확성에 대한 추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1890 년: 최초의 크로노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포켓 워치. 1903 년: 에드몽 예거)와 협력하여 제작한 울트라 싼 포켓 워치. 1920 년대: 칼리버 101 의 극도의 소형화. 1946 년: 매뉴팩처 최초의 투르비옹 칼리버로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1 위 수상. 1958 년 지오피직 크로노미터 출시 1992 년: 1,000 시간의 컨트롤 프로토콜. 2004 년: 자이로투르비옹 출시. 2007 년: 듀오미터 시스템 출시. 2009 년: 그랑프리 드 크로노메트리. 2014 년: 플라잉 투르비옹과 특허받은 S 자형 헤어스프링을 갖춘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칼리버 362 출시. 2019 년: 자이로투르비옹 5 세대 출시.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

## 프리시전 메이커

1833년 브랜드 설립 이후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정확성에 대한 추구는 예거 르쿨트르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메종의 근간은 앙투안 르쿨트르의 두 가지 주요 발명품, 즉 유례없는 정밀도로 피니언 톱니를 자르는 도구(1830년)와 마이크론을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기인 밀리노미터(1844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두 장치 모두 전체 워치메이킹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뉴팩처 내에서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자이로투르비용으로 알려진 최초의 다축 투르비용과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프링 개발을 포함하여 일련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칼리버의 경우 듀오미터 시스템의 발명으로 컴플리케이션 작동으로 인해 등시성(메커니즘 '심박'의 규칙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정확성 추구는 창립 이래 메종의 핵심 원칙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를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